

민주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여는 ——

민주공원

2026년 봄호 통권 180호



2026년 봄호 통권 180호

발행처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발행인 이행봉 | 편집인 이동일
발행일 2026년 4월 15일 | 간별 계간 | 등록일 2005년 4월 12일
등록번호 부산중,바00013 | 표지 제호 신영복
편집장 이보람 | 편집위원 김보영 김솔지 유한별 최원석 최의덕
디자인·인쇄 디자인글꼴 051-636-1215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19(우 48901)
전화 051-790-7400 | 전송 051-790-7410
누리집 demopark.or.kr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떠내면서

이번 봄호(180호)는 만물이 다시 생동하고 새로운 순환의 문이 열리는 이 계절의 감각을 담아,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에 겹쳐 보고자 합니다. 민주주의의 미래는 위기의 순간에만 호출되는 가치가 아니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살아 숨 쉬는 질서로 이어지는데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삶의 시작에 서 있는 청소년과 청년은 민주주의의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재'를 살아가는 주체입니다.

이들이 경험하는 민주주의는 곧 민주주의의 일상화가 가능한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번 호는 청소년과 청년의 삶 속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따라가며, 민주주의를 다음 세대로 건네기 위한 우리의 책임을 다시 묻고자 합니다.

SNS로 빠르게 소식을 만나보세요!



민주공원
인스타그램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카카오톡 공식채널

민주공원

- Facebook facebook.com/Minjugongwon
- Instagram @democracypark
- YouTube youtube.com/민주공원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Facebook facebook.com/busanminju

목차

- 마루누리**
- 4 시대의 침묵을 깨고, 다시 캠퍼스의 '빛의 광장'을 열자
_ 이승민

- 민주공원**
- 8 시민의 빛, 부산에서 타오르다
_ 이봉미
- 14 사람과 역사를 잇는 청춘의 여정
_ 이보람
- 16 어이! 힘을 내세
_ 김민화

- 늘빛드레**
- 18 솔밭산 열사묘역, 멈춰버린 시간이 역사가 되는 곳

- 더: 나는**
- 22 2024년 딥페이크 성범죄와 일상의 민주주의
_ 장병순
- 28 별을 품은 눈동자, 찬란한 꿈의 무대를 펼치다
_ 이보람
- 30 모두의 봄을 응원합니다
_ 허태준

- 회원과 함께**
- 34 올해도 함께해요
_ 유한별

- 민주사랑방**
- 36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시무식 외
- 38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에서 온 소식

- 민주알림방**
- 39 민주주의로 이어지는 우리의 시간
- 40 소식지를 읽으면 정답을 알 수 있는 십자말풀이

4



12



14



18



36





시대의 침묵을 깨고, 다시 캠퍼스의 '의 광장'을 열자!

이승민 · 前 부산대학생행동* 대표, 現 전국대학생연대 교육위원장

과거 민주화를 이끌었던 거대한 학생운동의 일대기는 지금의 대학생들에게는 교과서 속에서나 볼 법한 낯선 이야기, 영화에서 접했던 멋진 영웅담처럼 느껴지곤 한다.

모두가 학생운동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과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학생운동'이 나 '사회참여'를 이야기하는 것은 학우들과 동떨어진 외침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취업과 스펙 쌓기에도 박찬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서는 타인의 삶과 사회의 구조를 돌아볼 여유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언제나 행동하는 사람들은 존재했다. 시대가 변하고 방식이 달라졌을지라도,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열망'은 결코 낡은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심화되는 불평등, 무한경쟁 속에서 명들어가는 청년, 대학생들의 마음, 그리고 당장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대학 사회 내부의 불리함까지. 우리가 침묵한다고 해서 당면한 문제들이 스스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 학내 민주주의와 사회 참여를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부산대학생행동' (2025년 제34회 민주시민상 단체부문 수상자)이 최근 '전국대학생연대 부산지부'로 조직 전환을 했다.



처음부터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행동하겠다는 큰마음을 먹고 여러 활동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새롭게 마주한 세상이 궁금했고, 많은 이들과 교류하는 것 또한 너무나 즐거웠던 하루하루였다. 하지만 대학과 사회의 모순을 알고,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과 여전히 사회를 받지 못한 역사의 피해자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며, '지금 시대의 대학생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대학에 들어와 나의 인식을 바꾼 두 가지 충격적인 경험이 있다.

첫 번째는 '반값 등록금' 투쟁에 관한 이야기다. 대학 입학 후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등록금에 대한 큰 부담 없이 학교에 다녔다. 받을 때는 그것이 그저 당연한 것인 줄로만 알았다. 그러다 우연히 강연과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대학 등록금 등 생활고와 취업난으로 자살하는 대학생 연간 삼백여 명", "등록금 때문에 학자금 빚을 수천만 원 지고 졸업하는 대학생들". 대학생들을 생존의 벼랑 끝에 몰고 가는 사회에서 대학생들은 단결했고, '반값 등록금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싸워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기했다. 불과 몇 년 앞서 거리에 섰던 선배들의 치열한 투쟁이 지금 나의 삶을 비껴놓은 것이다. 그들의 행동이 없었다면 나 역시 막대한 학자금 대출의 굴레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이후 벌어진 빛의 광장이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과 건설 노동자와 청년 노동자의 잇따른 죽음, 그리고 굴욕적인 한일 협정까지. 윤석열 정권 아래 너무나 많은 이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을 보며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어 학내에서 '퇴진 국민투표' 활동을 시작했다. 학우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은 대학에서 꽤 힘이 강한 것처럼 보였다. 부산 지역 일부 대학에서는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비민주적 학칙을 거론하며 우리의 활동을 막아 나섰고, 한 대학에서는 공권력으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틀어막기까지 했다.

그러나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직후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윤석열 퇴진의 구호를 들고 학교에서 시국선언을 받기 시작했다. 대학에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어떻게든 모으고, 학우들이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도서관 앞에서 "지금 이곳에서는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연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내뱉을 때마다 지금까지 무신경해 보이던 학우들이 하나둘 다가와 서명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해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도 건넸다. 학교에는 학우들의 대자보가 하나둘 붙기 시작했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학우들은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불의에 참지 않고 일어설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빛의 광장, 그 광장을 수놓은 청년들의 빛은 가슴을 뛰게 했다. '빛의 항쟁 세대'라는 이름이 이제 우리도 우리 운명을 스스로 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된 것만 같다는 부푼 마음도 들게 했다.

앞서 이야기한 두 가지 경험을 비롯한 여러 경험을 통해 대학과 사회에서 대학생들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때 힘을 모아 세상을 바꿔내는 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되었다.



대학생들이 대학과 사회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윤석열의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일어 있던 대학 사회에서도 여기저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추운 겨울 수많은 청년과 대학생들이 자신의 소중한 빛으로 광장을 밝혔다. 우리는 뭉쳤기에 내란 세력과 맞서 싸울 힘과 용기를 얻었고, 연대의 따스함이 이곳저곳에 피어올랐다.

광장이 사그라들고 수개월이 흘렀다. 그렇게 아름답게 빛났던 빛의 광장을 수놓았던 청년들은 모두 일상으로 돌아갔고, 크고 작은 부조리함을 마주하고 있다. 전국 4년제 대학 60% 이상이 대학 등록금을 올렸다. 학생들과 어떠한 공론화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올린 것이다. 비민주적 학사 운영으로 학생들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하루아침에 학과가 통폐합되기도 한다. 가슴 한편에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자부심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만, 일상에서 마주하는 부조리함 앞에서는 또다시 무력해지곤 한다. 그것은 우리가 개인화,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대학생들이 실질적인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흩어진 목소리를 하나로 엮어낼 든든한 대학생 조직이 필요하다.

개인의 외침은 거대한 벽 앞에서 쉽게 흩어지지만, 조직된 연대는 그 벽을 허무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위기의 순간 광장에 모였던 에너지가 일회성으로 흩어지지 않고 일상 속 제도적 변화와 학내 민주주의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이를 끈질기게 대변할 중심점이 필수적이다. 파편화된 개개인의 분노를 모아 불합리한 대학운영과 사회에 대등하게 맞서고, 개별화된 고통을 공통의 의제로 전환해 낼 수 있는 단단한 울타리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 내에 건강한 공론장이 시급하다. 새 학기의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가 발 딛고 선 사회와 대학의 내일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혐오와 흑백논리가 난무하는 시대,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적'으로 규정되는 현실 속에서 침묵을 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자기방어일지 모른다. 좁아지는 취업 문과 각자도생을 권하는 사회 속에서 나의 미래를 제외한 다른 것을 돌아볼 여유조차 갖지 못했다. 그러나 서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담론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치열하게 숙의하고, 학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내는 공론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국대학생연대> 출범

전국 300만 대학생, 그중 부산 소재 대학생만 약 13만 명에 이른다. 부산을 넘어 전국 대학 캠퍼스 곳곳에 건강한 공론장을 띄우고, 대학생들이 세상의 온전한 주역으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최근 <전국대학생연대>가 출범했다.

전국에서 윤석열 퇴진을 외치며 빛의 광장을 밝혔던 대학생들과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하나의 대학생 단체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던 와중,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를 받았던 다른 지역의 대학생들을 만났다. 지역별 운동을 넘어 전국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전국 대학생단체에 대해 모두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화상회의와 대면 만남을 이어가며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했다. 준비위원회를 띄우고 활동하기를 수개월,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 전국대학생연대는 본조식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흑한의 거리에서 우리가 함께 밝혔던 '빛의 광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전국 곳곳에서 싹트는 민주주의를 향한 학우들의 열망이 현실의 변화로 피어날 수 있도록, 더 나은 내일을 우리의 손으로 직접 조각해 나가는 그 험난하고도 가슴 벅찬 길에 전국대학생연대가 앞장서겠다. 낡은 시대를 뒤로하고 자주와 평등의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첫 길목에서, 전국대학생연대가 내딛는 이 당찬 발걸음에 뜨거운 관심과 연대로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





12.3 불법계엄 저지 1년 시민헌정 아카이브전

시민의 빛,
부산에서 타오르다

이봉미 • 민주공원 교육문화팀 전시·학예

12.3 불법계엄 저지 1년
 시민헌정 아카이브전—
 시민의 빛,
 부산에서 타오르다

2025.12.3. — 2026.4.4.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3층
 작은펼쳐보임방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19

**시민의 빛
 부산에서
 타오르다**

2025.12.3. — 2026.4.4.

주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시민추진위원
 식민지역사박물관
 (주)이바

주관 및 전시기획 민주공실 문의 민주공원 교육문화팀 051-790-7482

민주공원

2025년 12월 3일,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3층 잡은 펼쳐보임방(기획전시실)에서 <12.3 불법계엄 저지 1년 시민헌정 아카이브전-시민의 빛, 부산에서 타오르다>가 개막했다. 이 전시는 2024년 12월 3일 불법계엄 선포 이후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저항과 연대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기록 전시이다. 이번 전시는 시민의 후원과 기증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전시는 2026년 4월 4일 막을 내렸으며, 비상계엄 선포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까지 이어진 123일의 시간을 되짚는 일정에 맞춰 진행됐다.

이번 전시는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그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고자 기획됐다. 당시 시민들은 각자의 일상에서 용기를 내어 광장으로 나왔고, 그 참여 하나하나가 민주주의를 지켜낸 힘이 되었다. 전시는 시민에게 바치는 헌정이자, 그 과정을 공공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동시에 민주공원이 시민의 기록을 수집·보존하는 공공 기록 공간으로서 역할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민주주의”라고 적힌 대형 깃발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전통 단청 문양으로 제작된 이 깃발은 실제 광장에서 휘날리던 상징적 물건으로, 시민들의 기운과 연대를 시각적으로 환기하는 오브제로 배치되었다. 개



민주주의 크기(그림 황종모, 제작 구지연, 퍼포먼스 김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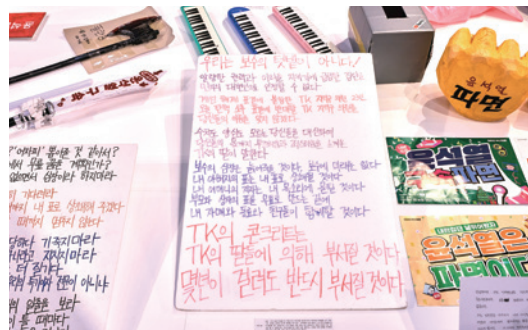
막식 퍼포먼스 역시 이 깃발을 중심으로 기획되어, 전시의 상징성을 더 강조하였다.

전시의 주요 구성 중 하나인 ‘부산 지역의 광장, 역사 타임라인’은 약 17미터 길이의 기록 벽과 시민의 목소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 타임라인은 사건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12월 3일 이후 부산을 중심으로 이어진 시민들의 연대와 사회 변화의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준다. 이를 통해 관람객이 참여와 변화의 과정을 하나의 기록으로 읽어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 타임라인 끝부분에는 시민 인터뷰를 배치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목소리와 감정을 함께 담아내곤 했다.



12.3 불법계엄 저지 타임라인

전시장 중앙의 '광장의 오브제' 공간은 이번 전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커다란 좌대 위에는 시민들이 집회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깃발, 손피켓, 응원봉, 조끼, 가방 등 다양한 물품이 전시되었다. 이 자료들은 부산에서 수집한 자료와 서울 용산 식민지역사박물관이 수집한 자료를 대여해 구성되었다. 이 공간은 개인의 감정과 사회적 열망이 교차하는 하나의 '광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시된 물건들은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당시의 목소리를 담은 시민 기록물이자 민주주의의 현장을 증언하는 실물 사료로 제시된다. 천장에 설치된 다양한 깃발 역시 시민들이 직접 쓴 문구를 통해 당시의 열기와 정서를 생생하게 전한다.



광장의 오브제

‘123일 시민의 기록’ 파트에서는 시민 영상 프로젝트 <워리카노>의 영상이 상영된다. 거리의 표정, 현장의 온도, 함성의 순간들이 담긴 영상은 기록물과 어우러져 전시를 감각적으로 확장하며, 관객이 그날의 기억을 더욱 입체적으로 마주하도록 돕는다. 전시 동선의 마지막은 12월 3일 불법계엄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결정문 요약본으로 마무리된다. 이는 긴 시간 끝에 결국 시민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시민 연대가 만들어낸 결과를 다시금 되짚어 준다.

이번 전시의 또 다른 특징은 **관람객 참여형 공간**이다. 관람객은 비치된 깃발에 자신만의 메시지를 그리거나, 아크릴 응원봉을 제작해 전시장에 전시하거나 가져갈 수 있었다. 관람객이 전시를 보고 새로운 기록을 남기는 참여형 아카이브로서 의미를 지닌다. 직접 기억을 이어 쓰는 현재진행형으로서 각자의 메시지와 흔적은 그날의 기억을 다시 되새기는 동시에 또 다른 시민의 기록으로 축적되고, 전시는 기억과 참여, 그리고 소소한 즐거움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 확장한다.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협력은 필수적이었다. 직접 부산민중연대 창고와 사무실을 찾아가 필요한 물품을 수집하고, 시민추진위원을 모으며 기증과 수집을 알린 결과, 시민들의 참여로 전시는 하나씩 채워졌다. 전시 물품이 끝까지 확정되지 않은 불안 속에서도 “이 물건도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절박함으로 수집을 이어간 과정 자체가, 시민과 함께 만든 전시임을 분명히 해준다. 전시 종료 이후 기증된 자료들은 민주공원의 민주주의기록관에서 정리·분류되어 아카이브로 보존될 예정이다. 시민이 직접 만들고 사용했던 물건들은 그 자체로 당시를 증언하는 중요한 역사 자료이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와 교육, 전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

전시장 참여 공간(깃발, 응원봉 만들기)



부산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마다 시민의 힘이 드러났던 도시였다. 이번 불법계엄 이후 시민 저항 역시 그 역사적 흐름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위기 속에서 시민들은 광장에 나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고, 연대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냈다. 전시는 그 과정을 ‘지금의 민주주의’라는 현재형의 기록으로 남긴다. 민주주의는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보고 질문해야 할 과제다. 민주공원은 그 기억을 시민과 함께 축적하는 공간이 되고자 한다. 이 전시가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순간마다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공동의 기억, 그리고 지역의 역사적 자산으로 남기를 기대한다.

- **주최**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시민추진위원, 식민지역사박물관, 워라카노, (사)부산민예총
- **주관** : 민주공원



관람객 후기

12월 3일, 민주공원에서 다시 만난 그날의 마음

투빈파파 · 부산시민

작년 이맘때,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서로의 체온으로 버텼던 그 순간이 오늘 민주공원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손끝은 얼어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던 그 겨울, “우리가 민주주의다”라는 사실을 서로의 눈빛으로 확인했던 바로 그 광장의 공기가 2025년 12월 3일, 민주공원에서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2025년 12월 3일, 민주공원 가리사리마당에서 풍물굿패 소리결의 가락이 울리는 순간, 우리가 함께 지켜냈던 ‘민주주의 크기’가 바람과 함께 펼쳐졌습니다. 그 깃발이 올라가는 장면을 보는데, 작년 서면 광장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깃대를 붙잡고 있던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피켓을 만들고, 누군가는 응원봉을 흔들고, 누군가는 옆에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던 그 밤들. 그때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다시 이곳에 모였습니다.



시민의 기록이 곧 민주주의의 증거다

전시 공간 안에는 우리가 직접 만들고 흔들었던 시위용품들이 하나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시민이 만든 손뜨개 파켓, 서면 광장을 밝혔던 응원봉, 수많은 손과 목 소리가 묻어 있는 깃발, 차가운 바람을 뚫고 함께했던 시민들이 입었던 의류.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걸 입증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타임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그날의 긴박함, 시민들의 분노, 두려움, 그리고 끝내 지켜낸 승리까지. 저도 모르게 숨이 깊어지고, 가슴이 짝 조여왔습니다.

전시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자, 우리가 만든 미래의 기록

이번 전시는 단순히 과거를 전시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승리,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내야 할 민주주의의 얼굴을 그대로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시민추진위원들이 기증한 자료들은 정말 ‘시민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귀한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시 마지막에 마련된 기억을 남기는 참여형 공간에서는 우리 각자가 왜 광장에 섰는지, 무엇을 지키고 싶었는지를 다시 떠올리게 해줬습니다.

2025년 12월 3일 민주공원에서 저는 다시 확신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켜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추운 아스팔트 위에서 서로를 지탱하며 버텼던 그 마음을 오늘 전시에서 다시 느끼고, 앞으로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산에서 타오른 시민의 빛, 그 빛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자원활동가 첫 만남

이보람 • 민주공원 시민홍보팀 홍보기록



“
엄마가
신청하라고
해서요
”

2월 7일 토요일 오후, 민주공원 작은방에서 2026년 민주공원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이 열렸습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2026년 자원활동가 25명 각자의 이야기와 함께 한 해의 활동을 그려보는 자리였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이후에는 뉘기림마당에서부터 민주공원 곳곳을 둘러보며,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민주공원 자원활동가는 2005년부터 매년 20명 내외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참여해 온 프로그램입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비롯해 민주항쟁·독립운동 학습과 역사기행, 민주주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자원활동가들이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고 경험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작년에 했는데
재미있어서요
”

2026년 민주공원 자원활동가



- 중학생** 김태영, 문성빈, 오민석, 이재준, 이지민, 정우빈, 조성운
- 고등학생** 박소현, 이나경, 이승민, 이태훈, 이효림, 정설빈, 조효빈
- 청년부** 강동근, 김자윤, 나인채, 옥승유, 정지영, 주상희, 최희주



6년 차 자원활동가 '정지영'

사람과 역사를 잇는 청춘의 여정



노근리 쌍굴다리 모습



— 민주공원 자원활동가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민주공원은 세네 살 때 처음 알게 됐어요. 어린이 태극기 그리기 대회에도 참여했고요. 엄마가 민주공원 회원이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누나도 자원활동가 출신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자원활동가를 시작했는데 코로나 시기가 활동을 많이 못 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했어요. 올해로 6년 차입니다.

— 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나요?

자원활동가 활동을 할 때가 즐거워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친해지는 과정도 재미있고요. 지금은 제가 대학생이라 중·고등학생들과 어울리는 게 예전만큼 쉽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활기차서 더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같이 장난도 치고 친해지고 싶어요. 대학생과 청소년이 함께 조를 이루어 활동하는데, 제가 처음 활동할 때 조원 네 명이 다 여자였어요. 그래서 너무 애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의젓하게 행동하고 어른처럼 보이려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 제일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매년 역사기행을 가는데 광주, 정읍(동학), 노근리, 제주 등을 다녀왔어요. 그중에서도 노근리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외진 곳이었는데 그런 곳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겨울에 가서 부산에서는 보기 힘든 눈을 봐서 좋기도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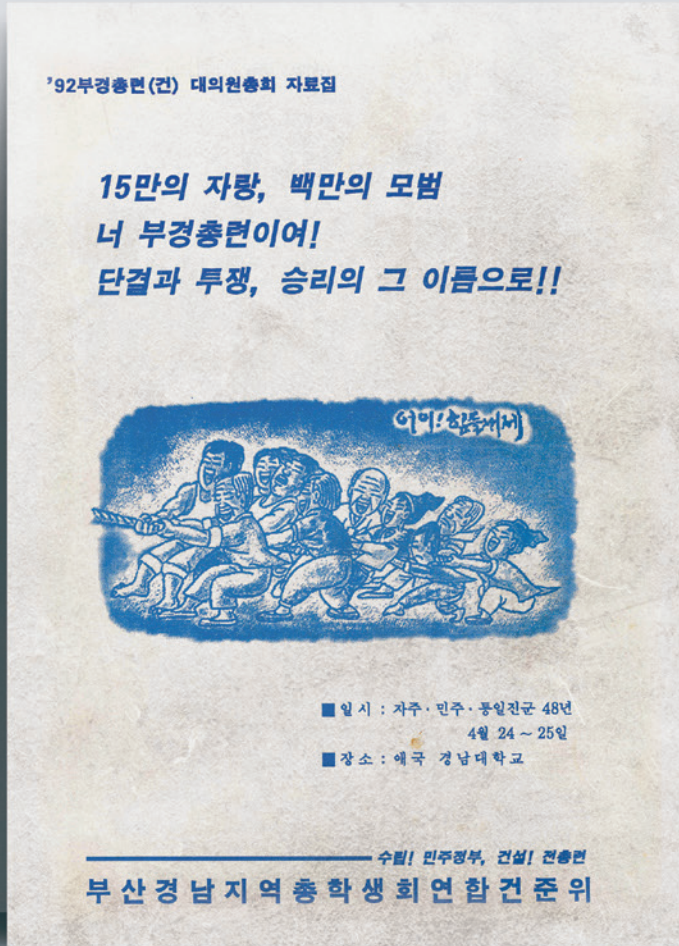
또 매년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아요.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 행사가 끝난 뒤 서로 수고했다고 격려하는 순간이 좋습니다. 한 번은 어린이날 행사에서 민주공원 캐릭터 '주' 인형 옷을 입은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특히 기억에 남아요.

— 올해 자원활동가로서 목표가 있나요?

지난 5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우수 자원활동가에 선정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꼭 우수 자원활동가로 선정되고 싶습니다.

“어이! 힘들네서!”

1992년 봄,
부산·경남의 청년들이 꿈꾼
‘실질적 민주주의’의 이정표



'92부경총련(건) 대의원총회 자료집

글 쓰는 순서

어는 시 『아미나와 역』	김진숙 1
글 쓰는 순서	2
부경총련 그 인간 건설을 위하여	임시태상 순병오 4
부산경남지역 총학생회연합 건준위 강령 (가안)	5
부산경남지역 총학생회연합 건준위 규약 (가안)	7
92년 부경총련 (건) 총자료	14
92년 부경총련 (건) 투쟁노선	16
92년 부경총련 (건) 조직 총노선	33
과학생회 운영의 실패도약을 위하여	64
92년 조국통일운동의 과제	74
각국 소개, 지위와 역할, 조직전망	85
I. 부경총련(건) 사무국 92년 노선	86
I. 총학생회 사설계획서	88

글 쓰는 순서

I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학생추진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80
II 민주정부수립의 요건 교수 연대/사/입/영/영/사/입/계/회	82
노동자 학생 연대사업	85
농학 연대사업 사업계획서	89
I. 학생자주화 소위원회 사업계획서	99
II. 실정을 뛰어넘어 민주정부수립, 통일조국 건설의 헌장으로	104
III. 부경총련(건) 문화국 사업계획	106
IV. 송년의 그 이름 부경총련(건) 투쟁국 송년기 사업계획서	109
14대 총선의 교훈과 향후 진로에 대하여	112
부경총련 건준위 1기 예산	126
교육부의 화려한 외출 -학원안정의 종합 대책-	128
약자원론	134
부경총련 구속자 현황	142

자료집 목차

1987년 6월 항쟁으로 제도적 민주주의의 문이 열렸으나,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과제는 여전했다. 흔히 1990년대 학생운동을 학생회 중심주의의 해체나 소멸의 전조로 읽곤 하지만, 이번에 소개할 사료 『92 부경총련(건) 대의원총회 자료집』(이하 '부경총련 자료집')은 침체 속에서도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던 지역 학생운동의 조직적 고심과 투쟁의 지향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부경총련 자료집'은 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 건설준비위원회가 정식 출범을 앞두고 1992년 4월 24일부터 경남대학교에서 개최한 대의원총회의 자료집으로, 표지에는 "15만의 자량, 백만의 모범 너 부경총련이어!"라는 강렬한 슬로건과 함께 '수립! 민주정부, 건설! 전총련'이라는 목표가 선명히 박혀 있다. 이는 3당 합당으로 탄생한 거대 여당 체제를 '기만적 민주주의'로 인식하고, 정권 교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던 당대 청년들의 시대적 과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본 자료집이 제시한 '투쟁노선'은 정치 투쟁과 생활 민주주의의 전략적 병행이 특징이다. '민주정부 수립'을 외치며 정치 투쟁을 강조하는 한편, 일상적으로 등록금 인상 저지, 교육 대개혁, 강의 평가제실시 등 해내 구상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강조했다. 이는 80년대식 반독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학생들의 일상적 권리로 확장하려 했던 전환적 노력이었다. 특히 자료집 곳곳에 새겨진 '자주·민주·통일진군 48년'이라는 연호와 '통일문제'에 관한 관점은 학생운동이 일상의 자치권을 넘어 분단 모순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주화를 실현하려 했던 원대한 지향점을 드러낸다.

30여 년이 흐른 지금, 누군가에게는 낡은 유인물에 불과할지 모르나 이 자료집은 90년대 초반 부산·경남 지역 청년들이 꿈꿨던 '자주, 민주, 통일'의 열망이 활자화된 소중한 기록이다. 지역 학생운동사가 한국 현대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조응하며 발전해 왔는지, 이 한 권의 자료집은 지금도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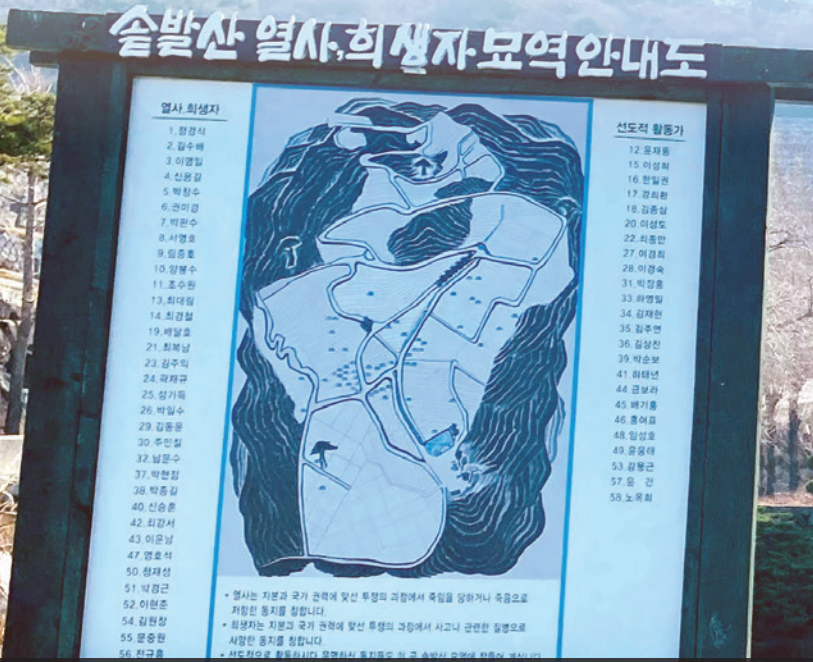


솔밭산 열사묘역 멈춰버린 시간이 역사가 되는 곳

남영란 •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교육위원장

솔밭산 열사묘역은 단순히 떠나간 이를 그리워하는 추모공간이 아닙니다. 자본의 가혹한 착취와 노동자의 절박한 저항이 정면으로 충돌했던, 우리 역사의 가장 뜨거웠던 '현장'입니다.

솔밭산의 열사들은 부당한 권력과 불평등한 세상에 맞서 자신의 생을 던짐으로써, 굽어 있던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았습니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솔밭산 열사묘역에서 시무식을 하는 이유는 역사가 끊어낸 역사의 한 지점에 우리 자신을 세워 실천을 결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공원 넋기림마당에는 민주열사 추모의 벽 '늘빛드레'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늘빛드레는 '늘 빛나고(늘빛)' '깊이 있는 인격(드레)'이라는 뜻의 우리말 합성어입니다. 추념의 의미와 함께 '열사 정신 계승'과 '존경'이 담긴 순우리말 이름을 붙였습니다.

2026년 봄호부터 부산·경남·울산 지역 열사들의 숭고한 삶을 기억하고 그 뜻을 계승하고자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와 함께 '늘빛드레' 연재를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헛되이 두지 않겠다는 산 자들의 결심, 그리고 그 뜻을 이어받아 현장에서 싸우는 실천이 있을 때 비로소 동지들은 우리 곁에 '열사'로 살아난다는 것을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열사는 어제의 나였고, 내가 딛고 선 오늘은 누군가 그토록 염원했던 '새로 쓰여지는 역사'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에 나를 세우고, 그들이 남긴 '늘 빛드레'의 빛을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야 합니다. 어제가 오늘이 되고, 오늘이 마침내 해방의 내일이 될 때까지 우리의 기록과 투쟁을 이어 나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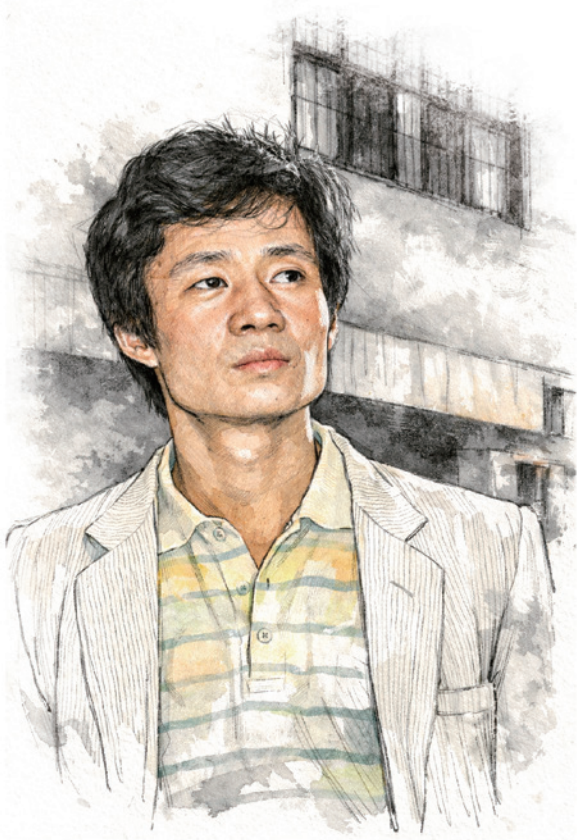
솔밭산공원묘원이 '열사묘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그 시작점에 신용길 선생이 계십니다. 1991년 3월, 참교육의 가치를 들고 산화한 신용길 선생이 이곳에 가장 먼저 안치되었습니다. 이어 그해 7월 박창수 열사, 12월 권미경 열사가 선생의 곁으로 모이며 솔밭산은 비로소 시대의 아픔을 품고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열사묘역'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투쟁의 심장으로 다시 살아

솔밭산 열사묘역

2023. 12. 1. 10:00

신용길 선생



1957년

- 서울 출생

1984년

- 주례여자중학교 부임

1987년

- 구덕고등학교 부임

1989년 7월

- 부산교사협의회 문화부장 역임
- 전교조 부산지부 결성식에서 축시를 낭송했다는 이유로 구덕고에서 해고

1989년 8월

- 출근 투쟁을 하던 중 경찰에 연행, 구속
- 옥중에서 단식투쟁을 하다가 위궤양으로 병보석

1990년

- 전교조 부산지부 교과위원장, 교과모임 결성지원, 부산교과연합 준비모임 결성

1990년 11월

- 위암 진단

1991년 3월 9일

- 운명(임종 직전 이 땅의 고통받는 민중들을 위해 안구 기증)

* 신용길선생님추모사업회는 구덕고등학교 제자와 후배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선생을 기억하며 추모사업과 연대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종현 • 신용길선생님추모사업회 총무,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회장

역사를 보았고, 스스로 거름이 된 스승

“요즘은 나는 역사가 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1987년 뜨거운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선생은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입시 기계로 만드는 ‘꿈 없는 교과서’를 거부하고, 스스로 ‘문제 교사’가 되기를 자처하며 전교조 결성의 선봉에 섰습니다. 단 둘뿐인 분회를 지키다 해고와 구속을 당하면서도, 선생은 감옥 안팎에서 단식과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궤양으로 피를 토하면서도 사무실에서 속삭이며 참교육의 기틀을 닦았던 그 치열함은 자신의 몸보다 아이들의 미래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눈으로 동지들의 복직을 보고 싶다”

1991년 3월 9일, 위암 투병 끝에 서른다섯의 젊은 나이로 운명하시기 직전까지 선생은 오직 ‘함께 가는 길’을 생각했습니다. “내 눈이라도 남겨 동지들의 명예 회복과 복직을 보고 싶다”라는 유언과 함께 기증된 선생의 안구는 두 사람에게 새로운 빛을 선물했습니다. 비록 몸은 솔밭산 흙으로 돌아가 거름이 되었지만, 선생의 시선은 제자와 후배들의 가슴 속에 살아남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참교육과 민주주의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거름 좋은 흙으로 드러누워

“교사여, 민족의 선생들이여. 당신들이 거름 좋은 흙이 되어 이 산하 곳곳에 마침내 드러누워 저 풀꽃과도 같은 우리 아이들을 살지게 키워내면 좋지 않겠는가.”(신용길, <마침내 거름 좋은 흙으로 드러누워> 중)



“솔밭산의 늘빛드레를 일상의 빛으로 만드는 일, 역사관 건립입니다.”

솔밭산에 잠든 열사들의 정신을 온전히 기록하고, 우리 노동자 민중의 피어린 투쟁사를 보존하여 내일의 이정표로 세우겠습니다.
국가의 간섭 없이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드는 이 역사적인 걸음에 마음을 보태주십시오.

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 건립위원이 되어주십시오.

건립위원 참여



더 나은

2024년 딥페이크 성범죄와 일상의 민주주의

장병순 · 전교조 부산지부 조합원, 초등학교 교사



이 칼럼은 3·8 세계 여성의 날 118주년을 맞아, 2024년에 학교 현장에서 불거진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그 이후의 변화와 과제를 짚어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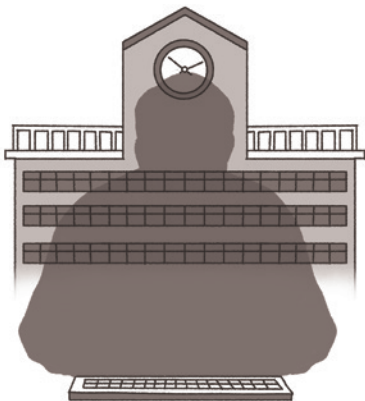
1- 변진석(2024. 10. 15.), 한국교총 “교원 93%, 졸업사진 딥페이크 범죄 악용 우려”,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81821>

2- 고정애, 이명화, 김혜영, 강자경(2023), 디지털 성범죄 가해 청소년 상담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및 매뉴얼 개발 연구보고서, 서울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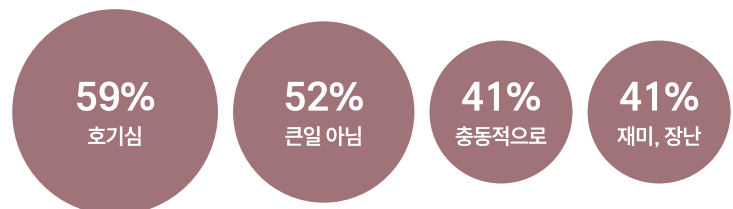
2024년 대한민국은 혼란과 범죄의 시간으로 기억된다. 정치적으로는 12.3 내란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실제 나와 가까운 일상에서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릴 정도로 충격을 준 사건은 딥페이크 성범죄였다. 당시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N번방 사건’을 시작으로 ‘인하대 사건’,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등으로 이어지며 전국적인 규모임이 확인됐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10대와 20대에 집중된 학생이었고 우리 지역, 옆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N번방 사건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다. 나를 포함해 매일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와 선생님의 얼굴이 성착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면서 SNS 프로필 사진을 내리고, 졸업앨범 사진 촬영을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¹

이러한 반응은 성별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대다수는 10대 남성이지만, 피해자 대다수는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며 SNS 사진을 내리고 졸업사진 촬영을 거부한 쪽은 여교사와 여학생이었다. 반면 대부분의 남학생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특히 가해 남자 청소년들은 ‘호기심’(59%)과 ‘큰일 아님’(52%), ‘충동적으로’(41%), ‘재미, 장난’(41%)²으로 여기며 범죄라는 자각조차 없었다. 이러한 인식의 간극은 전형적인 여성혐오이자 젠더폭력을 가리킨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갑자기 나타난 단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지속되어 온 성차별과 여성혐오가 AI 기술이라는 옷을 입고 드러난 위기 신호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일상적인 성차별 폭력이 가능하고, 그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이 열악한 우리 사회를 직시하고, 안전하고 평등한 민주사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경고로 해석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지옥문이 이미 열렸다”라고 말한 서지현 전 검사의 경고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 지옥문이 딥페이크 발생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 닫히지 않았다는 것은 내란보다 더 무서운 비극이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가해 청소년들의 인식



한국판 소년의 시간들

작년에 ‘소년의 시간’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공개되었다. 13세 소년 제이 미가 같은 반 친구 살인 혐의로 체포된 후 사건의 진실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그린 범죄드라마다. 이 사건은 결국 소년이 저지른 여성혐오 범죄로 드러난다. 오늘날 디지털 문화와 여성혐오 현상이 학교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현실을 예리하게 포착한 이 드라마에 주목한 영국 교육부는 이를 영국 전역의 학교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그만큼 영국 사회에서도 여성혐오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를 심각한 교육 문제이자 사회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소년의 시간’은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며, 오히려 영국보다 한국에 먼저 도달한 이야기라는 느낌은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와 학생들의 공통된 감각이다. 학교급을 막론하고 교실의 교사와 학생들은 일상적인 여성혐오 현상을 이미 익숙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학교 현장의 경험을 떠올리면, 2010년대 이후부터 학생들이 ‘누름’, ‘니애미’ 같은 이른바 ‘패드립’을 사용하는 장면은 점점 흔해졌다. 김애라(2017)³에 의하면 패드립은 주로 ‘여성-어머니’에 대한 ‘드립’에 집중돼 있다. 드립의 주체는 대부분 남학생이며, 친구에게 수모를 주거나 당황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비하의 대상은 부모 중 여성인 어머니로, 친구의 어머니를 지칭하며 성적으로 비하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패드립 또한 여성혐오 행위이다.

심지어 “가슴이 크다”, “다리가 예쁘다”와 같은 말을 교사에게 직접 하거나 교사를 대상으로 ‘섹드립’을 하기도 한다. 수업 시간에 일본 AV에서 유래한 ‘앙기모찌’라는 단어를 짝지나 말로 교사에게 던지는 일도 있었다.

이런 상황은 나아지기보다 더욱 악화하고 있다. 2024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사 성희롱 교권 침해는 2018년에 비해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전교조 조사(2021)⁴에 따르면 20대 여교사 66.7%가 학생에 의한 페미니즘 보복성 공격(백래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는 동료 교사(40.4%)나 학교 관리자(18.7%)에 의한 백래시 피해 경험 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교사가 당하는 여성혐오도 이렇진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성혐오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심각하고 지속적이다. 단톡방에서 여학생의 외모 순위를 매기는 일은 이제 애교일 정도다. 작년만 해도 학교에서 “남자는 여자가 부르면 3초 안에 대답한다”, “여자의 방은 주방이다”라는 계집신조 밈이 유행하였다.

20대 여교사에 대한
페미니즘 보복성 공격의
행위자 비율(2021년)

66.7% 학생

40.4% 동료교사

18.7% 학교 관리자

3- 김애라(2017), 학생의 성 권리 인식 및 경험 실태조사, 성평등 교육정책 연속토론회

4- 전국교직원노동조합(2021), 학교 내 페미니즘에 대한 보복성 공격(백래시)과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교사 설문 조사, <https://news.eduhope.net/24469>

이처럼 여성혐오는 형태를 달리하며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이를 제어하고 교육할 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오랫동안 쌓인 성차별이라는 부정의는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딥페이크 성범죄라는 현상은 몇몇 개인들의 일탈이 빚어낸 일시적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향한 불평등과 차별, 혐오로 인해 병들고 굶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사각지대를 경고하는 신호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

딥페이크 성범죄 이슈 후 한국 사회의 대응들

2024년 딥페이크 성범죄로 충격받은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에 따라 국회와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 지자체가 부지런히 대응해왔다.

국회는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반포 목적이 없는 딥페이크 성착취물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시청’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대상을 아동·청소년에서 성인까지 확대했으며, 범죄수익의 몰수와 추징 규정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보호조치를 강화하였다.⁵

또한 ‘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하여,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했다. 삭제 지원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책임성과 접근성을 높였으며, 삭제 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포함시켰다. 또한 중앙과 지역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청소년성보호법’도 개정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을 신설했다. 신분 비공개 수사에 대한 사후승인을 허용하고,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며 삭제 지원과 상담 등 피해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4개 광역지자체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초기 접수, 상담 지원, 수사 및 법률 지원, 삭제 지원, 의료지원 등의 공통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전화번호도 ‘1366’으로 일원화했다.

교육부는 학교 피해자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진행했다. 동시에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범교과 교육과정에 반영했다.

5- 백미연, 박보람(2025), 경기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과 과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처벌과 보호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2024년 정부와 지자체가 집중적으로 마련한 대책은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 삭제 지원 시스템 등으로, 주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 발생 당시 당사자 개인 차원의 접근에 머물렀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개인의 성적 일탈로 일어난다는 관점은, 온오프라인 성폭력이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불평등 구조를 간과한다. N번방 사건 발생 후 부산스럽게 마련된 대책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지 못했던 것처럼, 성차별과 여성혐오에 대한 구조적 해법 없이는 유사한 여성혐오 범죄가 반복될 것이 자명하다.

우리는 지난 정부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고 구조적 차별에 무지한 리더가 어떤 반민주적 비극을 만들어내는지 목격하며 충분히 학습했다. 구조적 성차별을 부인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던 윤석열 정부는, 여성혐오와 젠더차별을 증폭시키며 이주민, 성소수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범죄를 용인하고 부추겼다.

이 틈을 타서 스물스물 기어 나온 극우세력은 반페미니즘을 표방하며 더욱 활개를 치며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폭력을 전시했다. 이를 통해 차별을 부인하는 구조맹이 얼마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에 빠뜨리는지 똑똑히 배웠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의 헌법 유린 내란은 민주 시민에 의해 저지되었고, 청년 여성들의 응원봉으로 빛의 혁명이 만들어졌지만, 차별과 불평등, 혐오의 구조를 외면하고 회피하는 정부는 언제나 국민을 위협에 빠뜨린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의 핵심개념(출처 : 2018 국제 성교육 가이드)



관계



가치, 권리, 문화, 섹슈얼리티



젠더 이해



폭력과 안전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술



인간의 신체와 발달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



성 및 재생산건강

이제는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성교육

딤페이크 성범죄 같은 폭력이 작동하지 않는 안전한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폭력을 들여다보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폭력은 언제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권력 차이를 가능하게 하는 차별과 혐오를 먹이로 삼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경쟁, 서열화, 위계를 만드는 다양한 차별 구조가 사라지지 않은 한, 성별과 성적 지향, 지역, 학력, 장애, 고용 등을 이유로 분라구별배제하는 문화가 지속하는 한, 폭력은 다양한 얼굴로 변신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평등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학교에서 차별금지법의 가치를 실천하는 구체적 방식은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이다. 이는 성평등과 인권, 안전을 기반으로 모든 학생을 주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평등하고 건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성교육이다. 이를 통해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주체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며, 건강한 소통으로 관계를 맺는 역량을 키우는 것은 민주주의 공동체를 위한 기초가 된다.

따라서 지금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성교육이다. 그러나 윤여계인을 지지하는 보수개신교가 가장 반대하는 것 역시 바로 이 두 가지다. 이제는 더 이상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로 숨지 않고, 반복되는 성범죄의 지옥문을 닫을 안전장치를 결정해야 할 때가 도래했다.



전문청소년극단 눈동자

별을 품은 눈동자, 찬란한 꿈의 무대를 펼치다

이보람 · 민주공원 시민홍보팀 홍보기록



제2회 청소년 민주주의 상상한마당에서 어색하고 수줍은 얼굴과 목소리로 무대에 올랐던 아이들은, 다음 해인 제3회 행사에서는 능숙하게 관객과 호흡하며 극을 이끌어 갔습니다. 불과 1년 사이 완전히 달라진 무대를 보여준 청소년 배우들은 바로 '전문청소년극단 눈동자' 단원들이었습니다.

'전문청소년극단 눈동자'는 1993년에 설립된 청소년 연극 공연 단체입니다.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 속에서 창조적 감각을 펼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연극 활동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과 민주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¹ 또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연극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부산진구 연지동에 위치한 극단 연습실에서 정보는 대표와 단원(이현준(장), 허유정(총무), 김시완, 이지윤, 이현빈, 최보람, 최한결)들을 만났습니다. 이날 함께한 단원들은 모두 중학교 3학년 학생들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만남은 유쾌하고 즐거웠습니다.

1- 「전문청소년극단 눈동자」, 부산역사문화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_____ 눈동자를 소개해 주세요.

이현준 ‘청소년 스스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전문청소년극단입니다.

_____ 눈동자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이현빈 중학교 1학년 때 주제선택수업으로 연극을 골랐어요. 그때 선생님이셨던 정보는 선생님이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면 고기도 사준다고 해서요. 아르²

이현준 이현빈이랑 쌍둥이인데, 애가 토요일마다 사라지더라고요. 재미있어 보여서 따라왔습니다.

김시완 저는 배우가 꿈입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같이 해보자고 해서 왔는데, 하다 보니 재미있어서 점점 배우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_____ 주로 어떤 연극을 하나요?

이현빈 학교생활과 관련된 창작극을 많이 올려요. 저희가 평소 애 고민하는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만들고, 시나리오도 다 같이 씁니다.

_____ 연습이랑 공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현준 시험기간을 제외하고 토요일마다 모이고, 공연 전에는 더 자주 모여서 연습해요.

이현빈 베틀치기 연습이죠.

최한결 공연은 극단에서 하고, 포스터를 만들어 주시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려서 친구들에게 알려요. 학교에도 공연 보러 오라고 알리고요.

_____ 제일 기억에 남는 무대는 언제였나요?

단원들 작년(2025년) 상상한마당 무대에 올라갔을 때요! 제일 열심히 준비했고, 관객도 많이 있어서 기억에 남아요.

2- ‘아르’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의미 없이 감탄사처럼 쓰는 유행어로, 단원들이 ‘아르’라고 말한 것까지 꼭 써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_____ 올해 눈동자의 목표는 뭘까요?

이현빈 올해는 연극으로 돈을 벌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 가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창작 연극을 만들어 연습하고, 10분 연극제 같은 무대에 나가서 상금도 타면서 돈을 벌 계획이에요.

_____ 여러분에게 눈동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현빈 저에게 눈동자란,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행운입니다. 저는 주말마다 집에서 뒹굴고 폰만 보고 있었는데 눈동자에 들어오면서 활동적이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시완 저는 눈동자가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시간이 너무 뜻깊고 인상에 남아요. 제 꿈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어서 좋아요.

최한결 제일 소중한 것 중 하나입니다. 여기 오면서 친구들과 과 더 친해지고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어서 소중한 기억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최보람 편한 곳 같아요.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면 귀찮을 때도 있는데, 여기 오면 단원들이랑 연극도 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재미있어요.

허유정 저에게 눈동자는 ‘육개장 사발면’입니다. 다들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지만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근본 같은 곳이에요.

이지운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곳이라고 생각해요. 토요일마다 시간도 비워두고, 무조건 오게 돼요.

이현준 영화 인사이드 아웃의 감정들 같아요. 연기를 못하면 슬프고, 친구들과 놀면 기쁘고, 화나면 화나고...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_____ 소식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한 마디해주세요.

이현빈 시간이 된다면 저희의 재미있는 연극을 보러 와주세요. 저희는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니 함께 지켜봐 주세요.

김시완 눈동자에 많은 간식... 아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이름도 기억해 주세요.

모두의 봄을 응원합니다

허태준 · 작가, 『교복 위에 작업복을 입었다』 저자, 서점 '당신의 강릉' 공동운영자



<편집자주> 필자는 2015년 민주공원 자원활동가로 활동했다. 민주공원 소식지 140호(2016년 3월 10일 발행)에는 스무 살 사회초년생으로 인터뷰에 참여해 소식을 전했으며, 10여 년이 지난 지금 작가로서 글을 보내왔다.

몇 년 전, 김영하 작가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말한 ‘특별한 날 꽃을 선물하는 이유’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는 “식물이 꽃을 피운다는 건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라며 졸업식 등에서 꽃다발을 선물하는 건 “네가 그동안 여기 도달하기까지 겪은 수고, 고통, 힘듦에 대해 내가 알고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다.¹

김영하 작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다. 때로는 내 노력을 누군가 알아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응원과 위로가 된다. 당연한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일상 생활에서 그것을 실감하는 순간은 많지 않다. 우리가 애써 온 일들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며, 눈에 보이는 뚜렷한 성과가 없을 때는 스스로도 의심을 가지게 된다. 내 노력이 부족한 건 아닌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 건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든다.

<3학년 2학기>(감독:각본 이란희)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어른이 되어가는 ‘창우’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일상을 담담히 담아낸 영화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졸업을 앞둔 겨울 날 학교에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하지만 창우의 ‘일상’은 우리가 흔히 알던 고3 입시생의 모습과는 다르다. 자소서 쓰고, 면접을 다니고, 현장실습을 위해 교실 대신 회사로 출근한다. 수능, 대학, 졸업식과 꽃다발 대신 삭막한 공업단지외 번쩍이는 용접불이 화면을 가득 채운다. 영화 속 아이들은 모두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이기 때문이다.



1- <알쓸신잡> 통영편



“저를 좋게 봐줄까요?”

학교 선생님이 추천한 기업으로 면접을 보러 가기 전, 창우는 그렇게 되묻는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회사가 나를 받아들여 줄까?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자격증이 많은 것도 아닌 나를 환영해 줄까? 나는 그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누구도 명확히 대답해 주지 않은 채 창우는 회사 면접을 보고, 현장실습생으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한다.

예상대로 회사에서 적응하는 일은 만만치 않다. 창고의 재고를 정리하는 간단한 업무도 “실수하지 말고 꼼꼼하게 일하라”는 말과 “어차피 하다 보면 섞이는데 빨리빨리 해”라는 말 사이에서 헤매기 바쁘다. 작업복을 입었다고 창우의 내면이 곧바로 노동자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느리지만 꾸준히 회사 업무에 적응해 가는 창우와 달리, 함께 입사한 우재는 여전히 학생 티를 벗지 못한다. 업무 지시를 내리는 대리의 말에 토를 달기도 하고, 화장실에서 몰래 선잠에 빠지기도 한다. 학교에서는 유쾌한 모습이었던 우재가 회사에서는 ‘문제아’로 찍힌다. 결국 “그럴 거면 집에 가라”는 대리의 말에 육한 우재는 정말로 짐을 싸서 회사를 그만둬 버린다.

“나가면 뭐 하려고?”

“몰라, 뭐라도 하겠지.”

창우는 그만두는 우재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지만, 사실 자신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하지만 이어지는 질문에 대답을 찾지 못하고 회사에 머물기를 택한다. 우재는 아버지가 편의점을 운영하기에 그곳에서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며 군 입대를 준비할 수 있지만, 창우는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면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다. 딱히 하고 싶은 일도 없다. 그러는 사이 회사 식당에 딱 하나 설치된 TV는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의 모습을 비춘다. 남들이 온갖 미사여구로 치장하며 ‘청춘’이라고 부르는 시절을 창우는 그렇게 담담히 지나간다.

실제로 영화 내내 창우는 심각한 사건이나 불행을 겪지 않는다. 손이 느린 창우를 못마땅하게 보는 대리가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여러 조언을 해주는 친절한 주임도 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해본 사람이라면 ‘저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공장에서 일하는 창우를 보며 누군가는 ‘공부를 안 해서 저런 곳에서 일한다’는 뻔한 레퍼토리를 반복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긴 호흡으로 창우의 보이지 않는 애씀과 고민, 노력을 ‘알아 간다’. 그렇기에 관객들은 창우를 함부로 대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못한다. 오히려 창우를 보며 스스로 되묻게 된다. 일상은 대체 얼마나 치열해야 하는가? 평범한 삶은 응원과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는가? 창우가 잘 살기 위해서는 그의 개인적 노력만으로 충분한 걸까?

창우는 대범하거나 영특하지는 않아도 깨끗하게 맡은 일을 해 나간다. 매일 아침 일어나 1시간이 넘게 걸리는 출퇴근길을 오가며, 집에 돌아와서도 투정 한마디 없이 엄마를 대신해 어린 동생을 돌본다. 처음 받은 월급으로는 동생이 원했던 치킨과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주기도 한다. 그 특별하지 않은 책임의 무게를, 한 번이라도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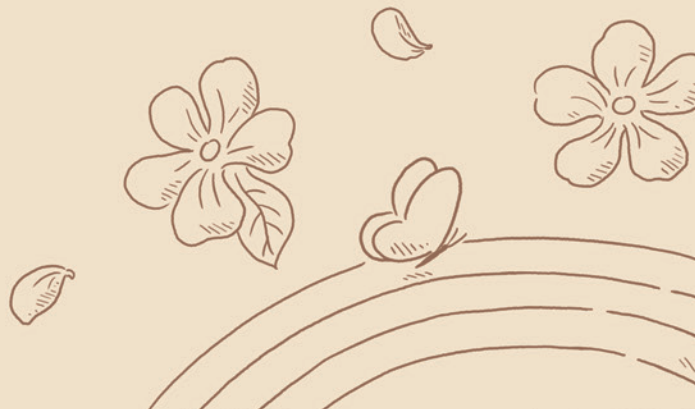
누구나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관객들이 보내는 응원은 화면 속 창우에게 닿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혼자, 때로는 친구들과 고민을 나눈다.

“사실…… 좀 무섭다.”

1월 1일 새해, 우재가 일하는 편의점에서 두 사람은 함께 맥주를 마신다. 눈치 보지 않고 구대한 캔맥주는 첫 출근보다 더 어른으로서의 자신을 실감나게 한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우재는 해병대에 지원해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한다. 입대는 한 달 후, 놀란 표정의 창우를 보며 우재는 담담히 말한다. 사실, 좀 무섭다고.

영화 내내 철없어 보이고 한없이 가볍게만 보이던 우재가 다르게 보이는 순간이다. 사실 우리는 모두 그런 순간을 지나왔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때, 한 사람의 몫을 요구받을 때, 오래 준비한 시험이나 프로젝트의 결과를 눈앞에 두었을 때, 각자의 삶에 매번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과와는 무관하게, 누군가 그 마음을 알아주길 간절히 바랐을 것이다.

그렇기에 나의 노력을 알아주는 ‘타인의 시선’은 인정보다는 확인에 가깝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믿음, 틀리지 않았다는 안도감, 이대로 계속 살아도 괜찮다는 신호는 모두 자신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나온다. 김영하 작가가 말한 ‘특별한 날 꽃을 선물하는 이유’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것처럼, “네가 그동안 여기 도달하기까지 겪은 수고, 고통, 힘듦에 대해 내가 알고 있다”라는 사실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응원과 위로가 된다.



하지만 그 시선은 정말 공평하게 가닿고 있을까? 도심과 멀리 떨어진 공업단지의 TV에까지 비치는 ‘수능 응원’과 달리,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도 깨끗하게 자신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잘 보이지 않는다. 그들도 분명 각자의 방식으로 긴 겨울을 견뎠을 텐데, 누구도 그들의 애씀을 알아 주고 축하를 건네지 않는다. 그럴수록 그들은 점점 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것이다.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영화는 결말부에 가서도 창우와 우재의 삶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내리지 않는다. 그저 앞으로 계속될 그들의 삶을 넘기지 예고할 뿐이다.

하지만 영화를 본 관객들은 이제 알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풍경 밖에도 고민과 노력으로 가득한 청춘의 다른 모양이 있음을. 작년 9월 영화가 정식 개봉한 이후, 겨울 거리에는 작지만 큰 변화가 생기기도 했다. 흔히 보이던 ‘수능 응원 현수막’의 문구가 달라진 것이다. 시험과 수능, 입시와 고3이 아닌 ‘모든 청소년’과 ‘사회초년생’이 중심이 되는 현수막이 내 걸렸다.²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변화일지 모르지만, 그 작은 시선이 비출 이야기는 앞으로 더 많이 이어질 것이다. “저를 좋게 봐줄까요?” 되묻던 창우도, “좀 무섭다”라고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는 우재도, 어쩌면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어른이 되고 있는 누군가도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올 계절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커다란 성과와 성취를 거둔 소수의 봄이 아닌, 각자의 겨울을 견뎠 온 모두의 봄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사회가 온 힘을 다해 피워내야 할 꽃은, 그 봄을 기다릴지도 모르겠다.



2-교육연론장, “수험생 아닌 열아홉도 쟁기는 수능 현수막”, 2025.11.12

2026년 시민회원 참여 프로그램 안내



올해도 함께해요 ♥

유한별 • 민주공원 시민홍보팀 시민·회원사업



민주공원에 오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공연·전시가 시민 여러분에게 열려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민홍보팀에서 준비하는 시민회원 참여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올해도 시민홍보팀이 머리를 맞대고, 시민회원 여러분이 함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기간 인기리에 진행되었던 '역사 모꼬지'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선보일 계획입니다. 부산 인근에서 당일로 다녀올 수 있는 민주주의 역사 탐방 코스를 마련해, 지역의 대학생과 청년 단체,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누구나 어렵지 않게 민주주의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볼 수 있도록 강사진을 꾸리고 탐방 코스도 새롭게 개발할 예정입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에는 '길고 긴 방학,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까' 고민하는 어린이 가족을 위한 **방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주공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민중미술 작품을 활용한 **안전하고 손쉬운 판화 체험**과 민주항쟁에 대한 해설까지 함께하는 알찬 구성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민주공원은 시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인 만큼, 매일 산책을 위해 찾는 귀여운 반려견과 주민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 속 만남에서 착안해,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며 공존과 배려의 가치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통해 선발된 참여자들은 민주공원의 '자원활동견(가칭)'으로서 저녁 시간대 공원의 산책로와 야생화 군락지, 각종 조형물 주변을 함께 순찰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한 공원 곳곳의 안전 사각지대를 살피고 환경 정비가 필요한 곳을 알려,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올해 개관 예정인 민주공원 '민주주의기록관'에 소장된 방대한 민주주의 자료를 시민과 함께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회원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선전문과 대자보, 기사 속에 담긴 민주주의 기록을 함께 들여다보고 그 의미를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해보려 합니다.

민주공원은 시민과 회원 여러분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수탁기관 민주공원, 부설기관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임직원들은 1월 2일(금) 사무식으로 새해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민주공원 낮기림마당에서 애국영령과 민주열사를 기리며 참배를 했습니다. 이행봉 이사장은 방명록에 “민주영령들이시여 조국통일과 민주주의의 길에 해와 달처럼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라는 글을 남겼으며, 민주공원 이동일 관장은 “민주주의 가치 확산으로 나라의 자주권을 강화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라고 남겼습니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정기총회

2026년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정기총회가 2월 5일(목) 오후 7시 민주공원 작은방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총회에 앞서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과 신입 직원 인사 시간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매년 사업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한 회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평가와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202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특히 새롭게 임원을 선출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이행봉 이사장과 이희길 부이사장을 재선임하였습니다.

부산지역 민주열사 유가족 설 명절 인사

2월 11일(수) 2026년 설을 앞두고 민주공원 이동일 관장과 직원들이 부산지역 민주열사 유가족을 찾아뵙고 인사 드렸습니다. 이태춘 열사의 어머니인 박영옥 님, 황보영국 열사의 형인 황보시목 님, 박종철 열사의 고모인 박정애 시인에게 설 인사와 함께 명절 선물을 전해드렸습니다. 이태춘 열사의 어머니께서는 올해 아흔다섯의 연세에도 정정한 모습으로 “모두가 내 자식 같다”라고 하시며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주화운동단체 간담회 참석

2월 11일(수)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부산 지역 활동 단체로 민주공원 교육문화팀 김선아 팀장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8개 단체 11명이 참여하여 기관별 역사교육 자료 현황을 공유하고 민주주의 역사교육 자료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자료 탑재 시스템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는 학교 교사들이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단체의 교육자료들을 탑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민주공원에서든 각 항쟁별 코스가 담긴 교육자료와 체험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학교 역사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정입니다. 교육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 부산설명회 참여

2월 23일(월) 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준비 과정에 대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부산지역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참여 제도의 정착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김호진 사무처장이 부산지역추진위원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대만 228사건 제79주년 추모식 참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희길 부이사장과 김호진 사무처장은 대만 228사건기금회 초청으로 2월 27일(금)부터 3월 1일(일)까지 228국가기념관과 기금회를 방문하고 대만 228사건 제79주년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대만 228사건기금회는 우리 기념사업회를 비롯해 노근리국제평화재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5·18기념재단, 제주4·3평화재단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민주인권평화네트워크 참여 단체로, 네트워크 단체들과 민주주의와 인권 관련된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활동소식 바로가기 ▶



더 많은 소식과 일정 확인은 뉴스레터 '마루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부마민주항쟁 전국 확산을 위한 협력 논의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부마문화제의 전국 확산을 도모하고자 서울에 위치한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이재오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념관 내 행사 공간을 둘러보며 서울 행사 개최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이어 도울 김용욱 선생을 만나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한 강연 프로젝트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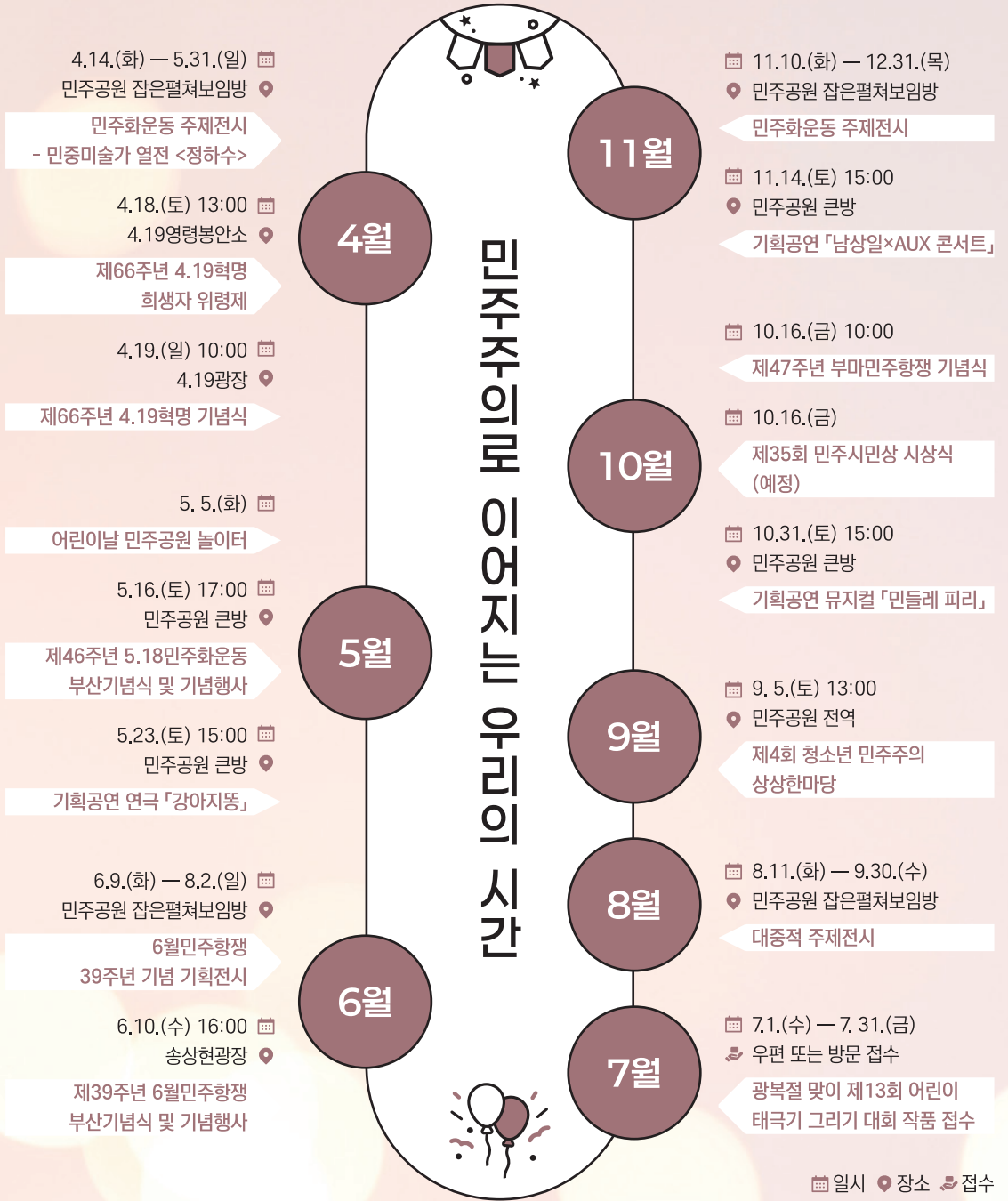
부마민주항쟁기념관 건립 부지 선정을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재단에서는 3월 6일(금) 오후 2시 부산시의회 2층에서 부마민주항쟁기념관 건립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시민 홍보 기반 조성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시민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형기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부마민주항쟁기념관 건립 최적지는 부산시 민공원이다'를, 정광민 10·16부마민주항쟁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고난의 땅을 민주주의의 광장으로-송상헌광장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기념관 건립 최적지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 뒤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들의 부마 1979’ 교재 배포 신청 접수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학교 현장에서 부마민주항쟁을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교재 『우리들의 부마 1979』를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합니다. 신청은 3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준비된 수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교사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구글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051-715-1785)





안내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민주공원 누리집을 통해 공지됩니다.

민주항쟁기념관 상설 전시해설, 민주공원 스토리투어, 민주공원 숲체험, 숲 스토리투어, 반나절 풍류, 부산민주역사길 현장탐방, 찾아가는 부산민주역사교실은 운영 기간 동안 민주공원 누리집을 통해 상시 접수 중입니다.

민주공원 누리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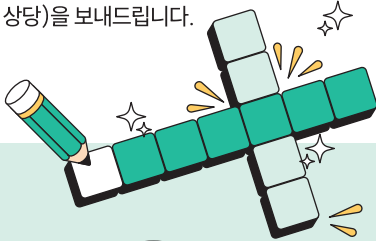


소식지를 읽으면 정답을 알 수 있는

십자말풀이

이번 봄호 소식지를 꼼꼼히 읽었다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십자말풀이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가로 세로 퀴즈를 모두 채운 뒤 사진을 찍어, 봄호를 읽은 소감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로 **5월 31일**까지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정된 정답자 10명에게 소정의 상품권 (1만 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1				8		9
2			5	6			
				7			
3			4				
					13		
		11		14			
10							
							16
	12				15		

가로

- 1 '92 부경총련(건) 대의원총회 개최일시 ○○·민주·통일진군 48년 4월 24일~25일
- 2 모두의 봄을 ○○합니다♥
- 3 솔밭산의 '늘빛드레'를 일상의 빛으로 만드는 일, 부산울산경남 ○○○○○ 건립입니다.
- 5 뱃페이크 성범죄 이슈 후,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강요에 대한 처벌이 신설됐습니다.
- 7 아카이브전에서 '광장의 오브제'는 시민들이 집회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깃발, 손피켓, 응원봉, 조끼, 가방 등 다양한 ○○이 전시되었습니다.
- 8 2026년 시민회원 참여 프로그램으로 역사○○○가 개편되어 찾아옵니다. 올해도 함께해요♥
- 10 영화 <3학년 2학기> (감독·각본 이란희) 주인공 창우는 고등학교 마지막 3학년 2학기를 학교가 아닌 공장에서 중소기업 현장○○○으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합니다.
- 12 부산진구 연지동에 위치한 주제적 청소년 연극 단체 '전문청소년극단 ○○○'
- 13 신용길 선생은 아이들을 입시 기계로 만드는 '꿈 없는 ○○○'를 거부하고, 스스로 '문제 교사'가 되기를 자처하였습니다.
- 14 민주공원 넋기림마당에 위치한 민주○○ 추모의 벽 '늘빛드레'
- 15 멈춰버린 시간이 역사가 되는 곳, ○○○ 열사묘역

세로

- 1 2026년 민주공원 ○○○○○의 활동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 4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 기록을 모읍니다! (○○ 기증 문의 051-750-3805)
- 6 식민지역사○○○은 12.3 불법계엄 저지 1년 시민헌정 아카이브전 공동주최 단체입니다.
- 9 『'92 부경총련(건) 대의원총회 자료집』은 90년대 초반 ○○ 학생운동사가 한국 현대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조응하며 발전해 왔는지 보여주는 소중한 민주주의 역사자료입니다.
- 11 모두가 ○○○○이 어렵다고 입을 모으는 시대에 '전국대학생연대 부산지부'의 출발을 응원합니다.
- 13 "○○여, 민족의 선생들이여, 당신들이 거름 좋은 흙이 되어 이 산하 곳곳에 마침내 드러누워 저 풀꽃과도 같은 우리 아이들을 살지게 키워내면 좋지 않겠는가." (신용길, <마침내 거름 좋은 흙으로 드러누워> 중)
- 14 지난겨울 거리에는 입시를 마친 고3 수험생만을 응원하는 것이 아닌, ○○○ 모든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현수막이 내걸리기 시작했습니다.
- 16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저항과 연대를 기록한 전시 <시민의 빛, ○○에서 타오르다>

소식지를 읽고

겨울호(2025년 12월 발행)를 읽으며 지난 1년간 우리의 활동들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것은 특별한 한 개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 그들이 모이고 함께 행동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주공원에서 진행되는 전시나, 민중가요저장소 등 이런 곳들이 부산에 있는지 몰랐는데 알게 되어 너무 유익했고 꼭 가보려 합니다! 다음 호가 기대가 됩니다.

— 박○희

함께 읽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식지를 맡고 있는 민주공원 시민홍보팀 이보람입니다. 올해는 소식지를 읽는 분들과 조금 더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소한 시도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바라게요.

첫 번째 소소한 시도는,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함께 읽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 EBS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대니얼 지블렛 - 민주주의는 어떻게 죽는가'를 우연히 보고 관심이 생긴 책입니다.

누구나 새해가 되면 '올해는 책 한 권은 꼭 읽자!' 하는 다짐을 하시죠? 저도 올해 이 책은 꼭 읽자고 마음은 먹었는데, 아직 책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읽기보다는 함께 읽어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로 5월 10일까지 연락 주세요. 051-750-3809로 전화주셔도 됩니다.

물론 아무도 연락이 없으면 결국 저 혼자 읽게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해 둔 이상 혼자라도 소감을 남겨야 한다는 책임감에 끝까지 읽게 되지 않을까요? ㅎㅎ



지난 호 정답 및 정답자

강○근 김○순 박○우 박○호 박○희
양○호 유○슬 이○빈 정○영 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호 정답은 카카오톡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카카오톡 공식채널로

민주공원 소식지에 대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세요.

소중한 의견은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소식지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카카오톡 공식채널



소식지 만족도 조사

참여하기



“그날의 외침을 오늘의 실천으로”



온라인
회원가입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 당신입니다!



민주화운동 정신은 과거의 기록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나침반입니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그날의 불꽃을 역사 교육으로, 시민의 연대로, 지역의 문화로 지금 이곳에서 다시 피워내고 있습니다. 역사를 잇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후원, 함께해 주세요.

회원 혜택



행사, 교육활동
우선 알림 및 혜택



회원 참여 활동
(체험프로그램 등)



공연, 전시 관람
무료 초대 및 특별 할인



소식지 무료 발송
(연 4회)



기관 기념품(굿즈) 증정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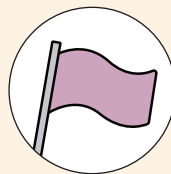
문의 회원사업담당 전화 051-750-3807 팩스 051-750-3810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 기록을 모읍니다!

민주공원은 민주주의기록관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역사 관련 기록물을 수집·보존·관리·활용하여
지역의 민주주의 거점 기록관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응원봉



깃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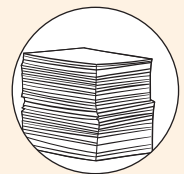
손피켓



각종 소품



사진·동영상



유인물 등

사료 기증 절차 안내

- 1 기증 신청**
 - ✓ 전화 : 051-750-3805(학술사료팀 사료연구)
 - ✓ 전자우편 : tami@demopark.or.kr
 -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카카오톡 채널
- 2 기증 희망 사료 조사 및 평가**
 - ✓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사료 확인(사료 수량·내용·상태)
 - ✓ 사료의 가치에 대한 평가, 수집 범위 설정
- 3 사료 수집 일정 및 활용 협의**
 - ✓ 기증 사료 수집 일정 협의
 - ✓ 기증 후 사료의 공개 범위와 전시·연구 등의 활용 방안 협의
- 4 사료의 수집**
 - ✓ 담당자의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사료 수집
 - ✓ 기증확인서 발급 및 기증자 혜택 제공



카카오톡 채널

 사단
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ISSN 2765-298X

민주공원 48901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19 ☎ 051-790-7400
민주주의기록관 49214 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 193번길 161 ☎ 051-750-3800